

## 고창군,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

### 교육 마친 주민 15명 임명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이 ‘생태 안내인’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3일 “해양수산부가 인증하는 ‘갯벌생태 안내인 교육’의 기초와 심화과정을 거친 지역주민 15명을 생태 안내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생태 안내인 양성과정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고창 지역 갯벌과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갯벌에 대한 이론과 실습, 환경해설기법, 안전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수한 생태 안내인들은 고창을 찾는 관광객과 미

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고창갯벌의 가치와 우수성을 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고창갯벌 10.4㎢는 200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2010년에는 랍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2013년에는 고창 랍사르 습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가가 인증하는 생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갯벌은 물론 자연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고루 갖춘 생태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